



유후인, 구로카와, 이부스키, 그리고 벳푸 겨울이 반가운 규슈 4대 개성파 온천마을 기행

무더운 폭염이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초겨울 동풍이 등을 떠밀며 이내 몸을 일본 규슈로 아프다. 규슈는 일본전국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온천의 왕국, 아직도 연기를 내뿜는 살아있는 화산이 두 개나 있고, 그 화산대는 규슈의 섬 전역으로 퍼져 온천대를 형성하니 어디를 가건 명품 온천들이 그득히 펼쳐지는 이유다. 온천이야 많지만 개성파 온천들은 따로 있다. 별장같은 호젓함의 유후인을 시작으로, 온천순례에 제격인 구로카와온천 모래로 온천을 즐기는 이색적인 이부스키에 대해 규슈온천의 숨겨둔 성지 우레사노까지 개성강한 4색 온천이 아메자니 온천마니아들의 발길이 규슈에서 따로 줄을 모른다.

| 이상직 기자



예술감성 가득, 오이타현 '유후인'

규슈온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벳부의 구석에 유후인이 자리한다. 스케일로 보자면 단연 벳부를 제일로 친다. 하지만 진짜 온천을 아는 이들이라면 벳부를 지나쳐 그 아래 작은 온천마을인 유후인으로 향하고 안다.

유후인은 예술과 온천의 거리로 칭해지며 연인들의 최고의 데이트장소로 사랑받는 온천마을. 세련되고 감각적인 온천을 기대하는 여성여행객들의 발길이 특히나 찾은 곳이다.

유후인은 유후다케로 대표되는 수려한 자연풍광과 아기자기한 흡과 광방들이 늘어서고, 미술관과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거리풍경이 시선을 자극하는 유서 깊은 온천 명소다. 크고 작은 고급료칸들이 늘어서고 유후다케 산을 조망하는 노천탕이 단연 명물이지만 온천마을을 다녀 풍경 또한 유후인여행의 백미다.

특히, 유후인역에서부터 긴린코호수까지 이어지는 상점가는 어느 테마파크에 와 있는 듯 흥겨움이 가득한 거리. 1.5km 남짓한 거리에 유후인 미술관을 시작으로 일본 전통공방, 아기자기한 악세서리점, 베이커리 카페 등 여행자의 시선을 하나하나 사로잡으니 겨우 1km 남짓 걸을 걷는데 2~3시간이 들만큼 유혹이 만만치 않다.

거리 끝곳의 인력거꾼들은 유후인만의 어트랙션이 된다. 100여 년 전 일본의 도련님과 아가씨들이 타고 다녔을 법한 호화스런 인력거에 오르면 인력거꾼이 빙 걸음으로 유후인의 숨겨진 명소로 안내해 준다. 일본어가 통하지 않아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호사를 누릴 수 있으니 즐기지 않으면 손해다.

거리 끝에 자리한 긴린코호수도 걸작이다. 호수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의 비늘이 석양의 빛을 받아 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긴린코라는 이름이 붙었다. 호수 아래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온천수를 끓여온 온천마을을 살피면서 아름다움을 제치고서라도 가볼만하다.

유후인의 새로운 명소도 생겼다. 소설 <인간설계>으로 한국에서도 팬이 적지 않은 일본 근대문학 거장 다자이 오사무의 하숙집 건물이었던 헤이운소우(碧雲軒)를 도쿄에서 그대로 이쪽한 <유후인 문학의 숲>이 문을 열었다. 다자이 오사무가 집필을 했던 작곡작은 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



니 필히 들려볼만하다.

온천순례 명소, 구마모토현 '구로카와'

온천천국 규슈에서 인기 있는 온천지를 고른다면 빼지지 않는 것이 '구로카와' 라는 이름. 구마모토현의 북쪽 아소산과 유후인이 위치한 오이타현이 만나는 경계에 자리한 구로카와온천은 한국여행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일본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에도시대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온천이지만 깊은 산속에 자리한 빛에 온천 불이 일어나던 80~90년대에 이르러서도 대형온천호텔 하나 들어서지 않는 잊혀져가는 온천이었다. 당시에 오사무가 집필을 했던 작곡작은 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

니 않은 빛에 옛 온천의 모습과 자연이 그대로 간직되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로카와온천의 가장 큰 특징은 온천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온천리조트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 20여 채의 온천료칸이 강줄기와 함께 각기 자리하고 있지만 검은색으로 통일된 온천료칸건물과 거리는 온천테마파크에 온 듯 감각적이고 세련되기까지 하다.

옛 모습그대로 작은 골목길을 따라 크고 작은 온천들이 자리하여, 네온사인의 환락가와 초고층 온천호텔에 익숙한 유명 온천관광지들과는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다. 구로카와온천에 여성 여행객이 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구로카와온천이 즐거운 이유는 더욱 다



양한 스타일의 온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보통 내가 숙박하고 있는 온천료칸의 온천탕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로카와에서는 숙박하는 온천료칸 뿐만 아니라 온천마을 내에 자리한 모든 온천료칸의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즐거움도 두 배다. 이용방법도 간단하여 1,300엔의 입욕패(入湯手形)를 구입하면 구로카와온천마을 내의 3개소의 온천을 끌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구로카와온천 거리에서는 입욕패와 온천료칸 안내지도를 들고 있는 온천에 입욕할까 고민하는 여행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자연과 통화된 인공적이지 않은 아기자기한 온천료칸이 아메자니 장년층은 물론 젊은 커플들에게도 온수를 추천할만한 명소다.

이색 모래온천,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구마모토 구로카와온천에서 시선을 더욱 더 남쪽으로 향하면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에 자리한 이부스키온천과 조우할 수 있다. 평범한 온천이겠지만 온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온천수가 아닌 모래이니 여행자들의 호기심이 주제랄 줄 모른다.

이부스키 명물인 모래찜질온천은 온천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천수와 온천일이 솟아나는 바닷가에 누운 채 그 위로 모래를 둘어 온천효과를 얻는 이부스키만은 독특한 온천방식. 입욕방법도 간단하다. 유카타(浴衣-목욕할 때 입는 일본 전통의복)나 수영복을 입고 모래사장에 누워 뜨거운

보래를 덮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맑을 흘려주면 된다.

보래를 통한 증기욕 개념이지만 효과는 보통 온천 못지않다. 단시간 입욕이지만 충증효고 덕택에 피부 깊숙이까지 온천성분이 흡수되니 웬만한 온천에 두 서너번 들어간 것 이상 효과도 좋거나, 월 지난 가을에 바닷가 모래사장에 파묻혀 일광욕을 즐기듯 여름기분을 내는 것 또한 유쾌하기 그지없다.

모래찜질온천은 이부스키 내에서도 스리가하마 해안과 야마가쵸의 후시마 해안에서 즐길 수 있고, 주변으로 유수의 온천료칸도 가득하니 남들과는 다른 온천을 기대하는 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달이 된다.

일본 대표온천은 바로 나! 오이타현 '벳푸'

일본에 대해 잘 모르는 이라도 벳푸온천이라는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가 바로 오이타현의 벳푸다.

벳푸온천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곳곳에서 펴어놓는 온천의 수증기를, 공장의 굴뚝처럼 흰 연기들이 솟아오르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임을 말없이 설명해주는 장관이다.

예로부터 벳푸에는 핫토(八湯)라고 불리는 여덟 개의 온천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핫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천단지가 단연 명물이다. 하마와카, 벳푸, 간카이, 호리타, 묘반, 간나와, 시바세키, 가메가와를 가리는데, 각각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어느 온천에 가야할지 망설일 정도다. 벳푸 시내에만 대중온천탕이 170 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시내 어디에서라도 손쉽게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대중온천탕의 경우 입욕료가 약 150엔~250엔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벳푸에서 온천만큼 즐거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온천시설을 순회하는 코스이다. '지고루'라는 것은 우리말로 '지옥(地獄)'이라는 뜻으로 펼펼 끊는 물이 용솟음치는 것이 마치 지옥에 온 것 같다고 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온천이라고는 해도 실제로 입욕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눈으로 즐기는 온천인 셈이다.

지고쿠메구리(www.beppu-jigoku.com)의 코스는 총 9개, 코스별로 각각 개성 풍부한 시설들로 바다지옥, 악어지옥, 가미습지 옥 등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지옥이 잘 재현되어 있다. 조금은 섬뜩하고 신비로운 풍경으로 벳푸의 관광명소가 된지 오래다. 모든 지옥을 돌아보는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관광료는 전시설이용권이 2,000엔.